

鄭彦郁 影幀의 保存處理

조경실*

*은실문물연구원

1. 서론

지류·섬유 유물의 보존처리는 유물을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물의 재료 및 손상상태의 과학적 고찰과 적절한 복원재료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림사지 전시관 소장의 영정을 보존처리하였다.

정언옥 영정은 영조 17년(1741)에 명경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 승정원 동부승지, 공조참의 등을 역임한 정언옥의 63세 때 모습을 이유덕이 1775년(영조 51년)에 비단에 그린 초상화로 향토유적 제64호이다.

영정의 보존처리와 더불어 영정 초(草)의 적외선 촬영과 안료분석, 천·지두의 수중 분석, 비단분석, 한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보존처리 과정

2.1 처리 전 상태

수리 전 유물은 바탕비단과 영정의 왼쪽 관복 부분이 몹시 깨어져 비단과 안료 등이 단순히 엷혀져 있는 상태였으며, 종이 슬고 꺾인 자국이 심했다. 반면, 영정의 흉배부분과 안면은 꺾임 외에는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2.2 세척

지류·섬유 유물의 보존처리 시 가장 중요한 세척(Cleaning)은 건식세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오염물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였다.

2.3 해체 및 배접

화면의 떨어진 안료와 조각을 따로 수집해 놓고, 영정의 배접 시 화면이 손상되지 않게 앞면에 가배접을 실시하였다. 뒷면의 구 배접지 제거 후, 새 비단으로 보강해주었으며, 천·지두 비단 제거 후, 뒷면에 종이로 배접하였다.

배접 종이는 참닥으로 만든 국내산 백닥 순지를 사용하였다.

2.4 복원

먼저 따로 수집해 놓은 비단 조각을 맞추고, 완전히 박락되어 결손 된 부분은 구 비단과 같은 울의 굵기와 열화상태를 지닌 비단을 사용하여 복원해 주었다.

2.5. 보채

오리나무와 황벽으로 만든 염료를 사용하여 영정 바탕 비단의 색을 맞추고, 무기 안료를 사용하여 옅은 색에서 진한색 단계로 관복을 보채 하였다.

2.6 전통표구

본지의 보존처리가 끝난 후, 100% 견으로 만든 천·지두 비단을 붙이고, 원래의 죽자 형태로 만들었다. 죽자 끈과 유소는 100% 실크로 제작한 수제품을 사용하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옥 축두(귀마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2.7 보관

보존처리 완료 후, 유물의 파손 방지를 위한 굵게말이 축, 내·외함, 상자 받침대는 오동나무로 만들고, 메칠브로마이드와 에칠렌옥사이드 혼합가스(86:14)로 훈증처리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영정은 정립사지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3. 분석

3.1 비단

영정 바탕에 사용된 비단과 천·지두에 사용된 능(綾)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비단의 폭보다 넓게 짜여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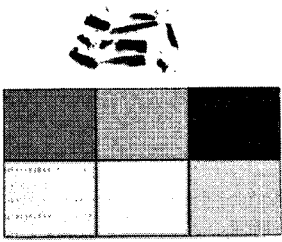
3.2 안료

안료는 관복 부분의 녹색과 배접된 종이에 묻어 난 녹색을 소량 채취하여 색도측정을 하고 XRD로 안료성분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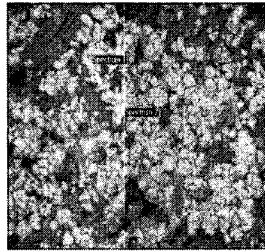
Data Name	L*(D65)	a*(D65)	b*(D65)	비 고
배접된 종이(밝은녹색)	37.90	-8.98	11.32	시료 세 곳을 측정하여 평균
바탕안료(관복부분, 어두운녹색)	28.67	-3.72	8.09	

[표 1] 색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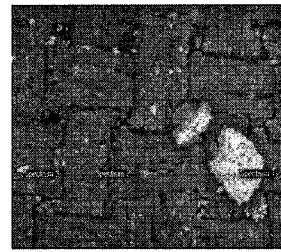
녹색안료는 Cu를 주성분으로 한 안료이다.



[그림 1] 분석 시료



[그림 2] 배접된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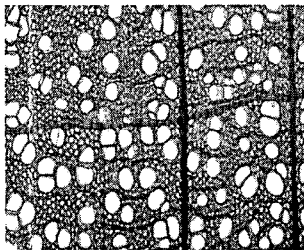
[그림 3] 바탕안료

3.3 수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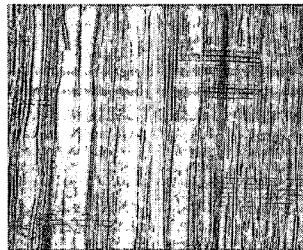
영정의 천두와 지두에 쓰인 나무는 자작나무과 자작나무속 이다.¹⁾

시료명	수종	학명(일반명)
천두·지두	자작나무과 자작나무속	<i>Betula platyphylla</i> var. <i>japonica</i> Hara (영) Birch (일) シラカンバ (漢) 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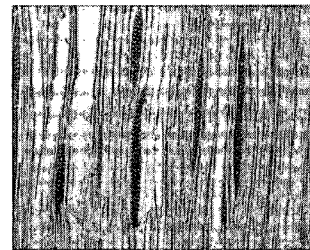
[표 2] 천두·지두 수종분석



[그림 4] 횡단면



[그림 5] 방사단면



[그림 6] 접선단면

3.4 적외선 촬영

적외선 촬영으로 영정의 초와 꺾인 부분 등의 훼손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영정의 흠배, 기타 영정을 그린 화법 등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남길 수 있었다.

4. 고찰

- 영정은 전체적으로 노재상의 근엄하고 인자한 풍모와 성품이 눈에 띄며, 상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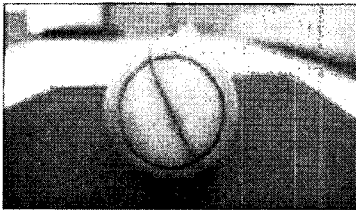
1) 경담문화재연구소

다 하반신을 확대한 모습으로 안정감을 더해준다. 부분적으로 오사모를 쓰고, 아름답게 채색한 단학문양 흉배를 착용한 정장관복차림으로 교좌에 약간 틀어 앉은 좌안8분면 전신좌상이며, 뒤에 호피를 깐 모습이 보이도록 하여 사대부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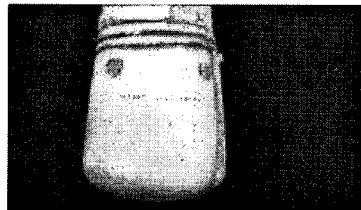
- 축두(귀마개)로 사용된 재료는 옥인데, 옥 축두는 두 줄의 붉고 푸른 선을 넣었고, 대나무를 못으로 사용하여 축에 부착하였다. 위와 같이 옥 축두는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어 족자 제작 시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7, 8]

- 바탕 비단은 3부분으로 나누어서 손으로 박음질을 하여 화면으로 사용하였다.

- 영정과 함께 화기와 호패가 보관되어 있으며, 화기에는 영정을 그린 시기와 화원이 기록되어 있어 초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림 7] 옥 축두의 붉은 선



[그림 8] 옥 축두에 사용한 나무 못

5. 결 론



[그림 9] 처리 전



[그림 10] 처리 후